

화학섬유 덩핑공세로 물귀신 작전?

워크아웃기업 시장교란에 대형기업도 가세 ... 원사가격 10-30% 폭락

Polyester 원사 생산기업들이 저가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이라크 전쟁과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최악의 상황을 견디다 못한 일부 화학섬유기업이 현금 확보를 위해 투매에 나서면서 업계 전체가 사활을 건 제살 잡아먹기 경쟁에 들어갔다.

일부에서는 덩핑공세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olyester 원사 가격은 2003년 초 파운드당 53-65센트(75데니어 범용제품 기준)였으나 최근 45-48센트로 10-30% 폭락했다.

관련기업들은 이미 20% 이상 조업률을 떨어뜨렸는데도 사정이 악화되고 가격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조짐을 보이자 추가 조업 단축도 계획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생산설비를 아예 철거하는 곳까지 나오고 있다.

효성은 2003년 초 100%에 육박했던 Polyester 설비 가동률을 80% 수준으로 낮췄다. 90%를 웃돌던 코오롱의 가동률은 70-80%대로 떨어졌으며, 휴비스와 새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Polyester 원사 가격이 급락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중소 원사생산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최근 화학섬유 경기 악화와 맞물리면서 대형기업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효성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워크아웃이나 화의기업들이 금융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덩핑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왔으며 최근 몇몇 대형기업들이 덩핑 대열에 가담하면서 업계를 출혈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전했다.

코오롱 관계자도 한 대형기업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원사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현금 확보를 위해 투매를 시작하면서 화학섬유업계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덩핑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정리돼야 할 기업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바람에 불똥이 튼 것 뿐이라며 자신들도 엄연한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결국 Polyester업계를 강타한 덩핑 문제는 화학섬유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화학섬유 시장은 1990년대 중반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과 기존 기업의 설비 증설이 붓물을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됐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속출했다. 13개 기업 가운데 대하합섬은 문을 닫았고 나머지 4개 부실기업들은 워크아웃과 화의에 들어갔다.

화학섬유업계 관계자는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기업들을 매각하든지 퇴출시켜야 했지만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들을 그대로 살려놓았다는 점이 문제라며 해당 기업들이 덩핑으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정상 기업들에게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요는 적는데 공급은 넘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가격경쟁이 심해지다보니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형국이 됐으며 화학섬유 시장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시장 논리에 근거한 업계 재편 뿐이라고 강조했다.

<Chemical Journal 2003/07/03>